

『능가경』의 여래장설

김준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집현전 태학사 과정생)

국문 초록

『능가경』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표현으로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결합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표현들이 등장하는 『능가경』의 「찰니품」을 중심으로 하여 『능가경』의 여래장설을 고찰한다.

먼저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능가경』에서 여래장은 알라야식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를 검토한다. 『능가경』에서는 여래장이 희론습기에 혼습될 때 알라야식이라고 불린다고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의 의미를 설명한다. 즉 혼습된 여래장이 알라야식인 것이지 여래장 자체가 알라야식인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능가경』의 여래장설의 특징으로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동일시를 제시하는 기존의 견해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한다.

이어서 『능가경』에서 여래장은 알라야식이 아니라 알라야식에 내장되어 있는 무루습기임을 논증한다. 그 근거는, 첫째, 희론습기에 혼습된 여래장은 무루습기와 전식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 희론습기는 전식습기에 대응하고 여래장은 무루습기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루습기는 『능가경』에서 무위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리류지는 무루습기를 가리키는 무위법을 진여여래장

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능가경』에서 여래장은 윤회의 주체로서의 알라야식이 갖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유식의 체계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알라야식은 윤회의 주체이므로 비찰나적이지만 동시에 유위법이기 때문에 찰나적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능가경』에서는 윤회의 주체로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을 제시하는데, 이때 여래장은 윤회의 주체가 갖는 비찰나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부터 『능가경』의 여래장 도입의도가 윤회의 주체로서의 알라야식이 갖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주제어 : 『능가경』, 알라야식, 여래장, 무루습기, 윤회의 주체

I. 서론

Lankāvatārasūtra (『楞伽經』, 이하 LAS로 약칭)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관계 짓고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관계 짓고 있다는 점에서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양 계열에서 특이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LAS에서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관계는 「찰나품」에서 집중적으로 논해지고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이 LAS의 「찰나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LAS의 여래장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LAS의 결합문구들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관계를 논하는 「찰나품」의 기술들을 제외하고, LAS의 여래장설은 여타의 여래장계 문헌에서의 여래장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 「찰나품」 이외에서 등장하는 여래장설을 정리해보면 LAS에서 여래장은 ① 불지(佛地) 혹은 자내증의 영역이며, ② 아뜨만이 아니다. 또 ③ 윤회의 주체이며 ④ 자성청정심이다. 그리고 ⑤ 유식의 삼성의 체계 안에서는 원성실성에 해당하는 것이다.¹⁾ 이중 ⑤는

1) 순서대로 ① LAS(Nj):9,11-10,2; 20,17-21,5. ② LAS(Nj):77,13-79,12. ③ LAS(Nj):242,2-6. ④ LAS(Nj):358,5-6. ⑤ LAS(Nj):67,15-68,1. 본고에서는 LAS 찰나품은 高崎直道の 교정본을, 그 외의 부분은

유식학과의 여래장설과 공통되는 것으로,²⁾ 이것을 제외한다면 LAS의 여래장설은 정통의 여래장사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LAS의 여래장설이 갖는 특이점은 「찰나품」에서 발견된다. 바로 여기서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찰나품」에서는 여래장과 알라야식이라는 두 개념을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세 가지 표현양식으로 결합하여 등장시킨다. 종래의 연구들은 이들 표현에 의거하여 LAS에서는 여래장과 알라야식이라는 두 개념이 서로 동일시되고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LAS의 여래장설은 정통의 여래장설이나 알라야식설과 차별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놓았다.³⁾ 즉 LAS에서는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하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이 결합되어 있는 문구(이하 편의상 결합문구로 지칭)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LAS의 여래장설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LAS의 「찰나품」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가 다루어 진다. 그 다섯 주제란 아뜨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전하고 환멸하는 것인가하는 윤회의 주제 문제, 相·名分別·正智·眞如의 5법, 삼세(三世)의 여래들이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다는 비유의 의미, 일체법의 찰나멸, 육바라밀이다.⁴⁾ 이중 결합문구는 ‘윤회의 주제’와 ‘일체법의 찰나멸’을 주제로 하는 부분에서 각각 9회와 2회, 총11회 등장한다. 이하 순서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구 ①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하마띠여! 여래장은 선과 불선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일체의 생(生)과 취(趣)의 작자(作者)이다. 아아소(我我所)를 떠난 [여래장]은 마치 배우와 같이 위험한 趣에서 유전(流轉)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래장은] 세 가지(=無

南條文雄의 교정본을 사용한다(이하 LAS의 高崎直道 본은 Ta로, 南條文雄 본은 Nj로 표기). 찰나품을 제외한 LAS의 다른 부분들에서 등장하는 여래장설이 기존의 여래장계 경전에서의 여래장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勝又俊教 1961, 625-626 및 高崎直道 1982, 171 참조.

2) 『攝大乘論本』에서는 원성실성을 자성청정(自性清淨), 이구청정(離垢清淨), 득차도청정(得此道清淨), 생차경청정(生此境清淨)이라는 4종 청정으로 설명한다(『攝大乘論本』卷中, 「所知相分」(T. 31, 140b4-12)). 그리고 세친은 『攝大乘論釋』에서 이 4종 청정 중 자성청정이 여래장이라고 주석하고 있다(『攝大乘論釋』卷1, 「所知相分」(T. 31, 344a3-7)). 여래장과 원성실성과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김준우 2021, 309-322 참조.

3) 대표적으로 勝又俊教 1961, 624-628과 高崎直道 1980, 59-61; 1982, 168-175를 들 수 있다.

4) 순서대로 LAS[Ta:1-15/Nj:220,1-224,3], LAS[Ta:16-34/Nj:224,4-229,9], LAS[Ta:35-54/Nj:229,10-234,8], LAS[Ta:55-63/Nj:234,9-236,15], LAS[Ta:64-69/Nj:236,16-238,8].

知, 愛, 業)의 화합이라는 조건의 작용과 결합하여 유전하는 것이다. [아뜨만이라는] 작자를 집착하는 데에 빠져 있는 외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무시이래의 종종희론(戲論)에 의한 추중(麤重)의 습기로 혼습되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게 된 [이 여래장은] 무명주지(無明住地)로부터 생긴 일곱 식과 함께, 마치 큰 바다의 파도와 같이, 항상 단절되지 않는 體로서 유전한다. [이 여래장은] 무상(無常)의 과실에서 떠나 있으며 이론(我論)이 소멸한 것이며 극히 자성청정한 것이다.⁹⁾

5) LAS[Ta:2,4-4,2/Nj:220,9-221,1]: bhagavāms tasyaitad avocat / tathāgatagarbho mahāmate kuśalākuśalahetukah sarvajānmagatikartā / pravartate naṭavad gatisaṃkaṭa ātmātmīyavarjitaḥ / tadanavabodhāt trisaṅgatipratyayakriyāyogaḥ pravartate / na ca tūrthyā avabudhyante kāraṇābhiniṣeśābhiniṣṭāḥ / anādikālavividhāprapañcadauṣṭhulyavāsanāvāsita ālayavijñānasamśabdito 'vidyāvāsanābhūmijaiḥ saptabhir vijñānaiḥ saha mahodadhitarāṅgavan nityam avyucchinnaśarīraḥ pravartate / anityatādośarahita ātmavādavīrṣṭo 'tyantaprakṛtipariśuddhiḥ / ālayavijñānasamśabdita는 ālayavijñāna와 samśabdita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중 복합어 말미의 samśabdita는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이 복합어는 다른 어떤 것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소유복합어이며 품사 상 형용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의 피수식은 앞서의 문장에서 명사로 등장한 여래장이다. 그러므로 문구 ①의 ālayavijñānasamśabdita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을 결합한 문구, 즉 결합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문구 ①에서 anādikālavividhāprapañcadauṣṭhulyavāsanāvāsita 이하 주격으로 등장하는 복합어들은 모두 앞선 문장의 여래장을 수식한다. 그런데 이중 ālayavijñānasamśabdita 직전에 등장하는 anādikālavividhāprapañcadauṣṭhulyavāsanāvāsita라는 복합어는 다른 복합어들과 달리 ālayavijñānasamśabdita와 하나로 연결되어 여래장을 수식한다.

즉 이 부분에 대한 한역 중 다른 역본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보리류지의 번역을 제외한 2종의 한역, 구나 발타라의 『楞伽阿跋多羅寶經』卷4, 「一切佛語心品」(T. 16, 510b7-8)과 실차난타의 『大乘入楞伽經』卷5, 「剎那品」(T. 16, 619c4)은 이 문장을 각각 '무시이래의 거짓되고 잘못된 습기에 의하여 혼습된 것을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고 한다(爲無始虛偽惡習所薰, 名爲識藏) / '무시이래의 거짓되고 잘못된 습기에 의하여 혼습된 것을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고 한다(無始虛偽惡習所薰, 名爲識藏)'고 번역하고 있는데, 두 한역 모두 '名爲'라는 말로 anādikāla로 시작되는 첫째 복합어가 의미하는 혼습된 여래장과 識藏 또는 藏識이라는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결합한 두 번째 복합어를 등치시키고 있다. 범어 원문에 비추어 볼 때 이 한역문은 識藏 또는 藏識이 희론습기에 의하여 혼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론습기에 의하여 혼습된 여래장이 識藏 또는 藏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래장이 희론습기로 혼습된 것, 그것이 곧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문에 대한 티벳역[H. 110, 228b]은 '무시이래의 종종 희론의 추중의 습기로 혼습됨으로써 알라야식이라고 불리게 된 (thog ma med pa'i dus kyi spros pa'i gnas ngan len gyi bag chags nram pa mang po bsgos pas/ kun gzhi nram par shes pa zhes bsgrags pa/)'인데, 티벳역의 경우 첫째 복합어의 마지막 구성어를 도구격 조사로 처리하여 여래장이 혼습되는 것과 여래장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티벳역은 여래장이 알라야식으로 불리게 되는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본고에서는 anādikālavividhāprapañcadauṣṭhulyavāsanāvāsita와 ālayavijñānasamśabdita라는 두 복합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 주는 티벳역을 참조하여 해당문을 '무시이래의 종종희론에 의한 추중의 습기로 혼습되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게 된 [이 여래장은]'으로 번역하였다.

문구 ②

여래장이라는 (말로) 불리는 알라야식이 전환(parāvṛtti)하지 않는다면 일곱 전식은 멸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일곱] 식은 그것을 원인으로 하고 소연으로 하여 생기하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성문과 독각과 외도의 요기수행자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⁶⁾

문구 ③

그러므로 마하마띠여!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뛰어난 보살마하살들에 의하여 청정해져야만 하는 것이다.⁷⁾

문구 ④ ⑤

마하마띠여! 만약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이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하마띠여!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환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하마띠여! 어리석은 자들과 성자들에게 있어 유전과 환멸은 존재한다.⁸⁾

문구 ⑥

마하마띠여! 이 여래장알라야식의 영역은 일체의 성문 · 독각 · 외도들의 사변적 견해를 갖는 자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자성적으로 청정하지만 외래의 번뇌에 의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성문 · 독각 · 외도)에게 있어서는 청정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래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마하마띠여! 여래들에게 있어서는 손바닥에 놓여 있는 아미라카(āmalaka)와 같이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영역이다.⁹⁾

6) LAS[Ta:6,1-4/Nj:221,12-15]: aparāvṛtte ca tathāgatagarbha(śabda)saṃśabdite ālayavijñāne nāsti saptānām pravṛttivijñānānām nirodhaḥ / tat kasya hetoḥ [] taddhetvāmbanapravṛttatvād vijñānānām aṣṭayatvāc ca sarvaśrāvakaṃpratyekabuddhatīrthyayogayoginām []

7) LAS[Ta:8,4-6/Nj:222,6-8]: tasmāt tarhi mahāmate tathāgatagarbha ālayavijñānasamśabdito viśodhayitavyo viśeṣārthibhir bodhisattvair mahāsattvaiḥ //

8) LAS[Ta:9,1-4/Nj:222,9-12]: yadi hi mahāmate ālayavijñānasamśabdito tathāgatagarbho 'tra na syād ity asatī mahāmate tathāgatagarbha ālayavijñānasamśabdite na pravṛttir na nivṛttīḥ syāt / bhavati ca mahāmate pravṛttir nivṛttīś ca bālāryānām /

9) LAS[Ta:10,1-5/Nj:222,14-18]: duṣprativedhaś ca mahāmate ayaṃ tathāgatagarbhālayavijñānagocaraḥ sarvaśrāvakaṃpratyekabuddhatīrthyavitarkadarśanānām [] prakṛtipariśuddho 'pi sann aśuddha ivāgantūpakleśopakliṣṭatayā teṣām ābhāti, na tu tathāgatānām / tathāgatānām punar mahāmate karatalāmalakavat pratyakṣagocaro bhavati //

문구 ⑦

바로 이것을 마하마띠여! 나는 승만부인을 위하여 설하였다. 다른 미세하고 총명하고 청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보살을 위하여, 유전에 집착하는 성문들에게 범무아를 실시할 목적으로, 승만부인을 위하여 여래의 대상인 일곱 식과 동반하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설해졌다. 성문과 독각, 그리고 다른 외도가 사변하는 대상이 아니다.¹⁰⁾

문구 ⑧

마하마띠여! 그렇지 않고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대상이 바로 여래의 대상이다. 너와 같이 미세하고 총명한 지혜(mati)와 지각(buddhi)과 변별(prabheda)을 가지며 義를 추구하는 보살마하살의 [대상이다.] 하지만 언설 그대로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일체의 외도 성문 독각들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¹¹⁾

문구 ⑨

그러므로 마하마띠여! 너, 그리고 다른 보살마하살들은 이 일체의 여래의 대상인 여래장알라야식을 완전히 아는 것에 대하여 수행을 해야만 한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¹²⁾

문구 ⑩

선과 불선은 나아가 마하마띠여! 즉 8식들이다. 무엇이 8인가? 즉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과 意의 의식(意識), 그리고 외도가 말하는 5식신이다.¹³⁾

10) LAS[Ta:11,1-6/Nj:222,19-223,5]: etad eva mahāmate mayā śrīmālāṃ devīm adhiḥkṛtya deśanāpāṭhe 'nyāṃś ca sūkṣmanipuṇaviśuddhabuddhīn bodhisattvān adhiṣṭhāya tathāgatagarbha ālayavijñānasamśabditaḥ saptabhir vijñānaiḥ saha pravṛtṭyabhiniviṣṭānāṃ śrāvakānāṃ dharmanairātmyapradarśanārtham śrīmālāṃ devīm adhiṣṭhāya tathāgataviśayo deśito, na śrāvakapratyekabuddhānyatīrthakaratarakaviśayaḥ /

11) LAS[Ta:11,6-12,5/Nj:223,5-10]: anyatra mahāmate tathāgataviśaya eva tathāgatagarbhālayavijñānaviśayas tvatsadrśānāṃ ca sūkṣmanipuṇamatibuddhiprabhedakānāṃ bodhisattvānāṃ mahāsattvānāṃ arthapratisaraṇānāṃ, no tu yathārutadeśanāpāṭhābhiniviṣṭānāṃ sarvānyatīrthyaśrāvakapratyekabuddhānāṃ /

12) LAS[12,5-13,3/Nj:223,10-13]: tasmāt tarhi mahāmate tvayānyaiś ca bodhisattvair mahāsattvaiḥ sarvatathāgataviśaye 'smiṃś tathāgatagarbhālayavijñānaparijñāne yogaḥ karaṇīyaḥ/ na śrutamātrasamtuṣṭair bhavitavyam //

13) LAS[58,3-59,1/Nj:235,6-9]: kuśalākuśalāḥ punar mahāmate yadutāṣṭau vijñānāni / katamāny aṣṭau yaduta tathāgatagarbha ālayavijñānasamśabdito mano manovijñānaṃ ca pañca ca vijñānakāyās

문구 ⑩

또한 마하마띠여! 意와 동반하는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전식(轉識)의 습기에 대해서는 찰나적이거나, 무루의 습기에 대해서는 찰나적이지 않다.¹⁴⁾

앞서 언급하였듯이 「찰나품」에서 결합문구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세 가지 표현양식으로 등장한다. 이중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문구 ①, ③, ④, ⑤, ⑦, ⑩에서,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문구 ②와 ⑩에서, 마지막으로 ‘여래장알라야식’은 문구 ⑥, ⑧, ⑨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양식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먼저 문구 ②에서는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 문구 ⑥, ⑧, ⑨에서는 ‘여래장알라야식’이, 문구 ⑦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모두 성문·독각·외도의 대상이 아니며 보살이나 여래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후술하겠지만 문구 ⑩의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문구 ⑩의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¹⁵⁾

이 세 표현양식 중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의 경우 문구 ①에서 그 표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찾아지나 나머지 두 양식, 즉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알라야식’의 경우는 그러한 설명이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이 두 양식은 특정한 문맥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이 발견되는데, 먼저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전 의나 찰나와 같은 단어에서 보이듯 상태변화를 암시하는 문맥에서 등장한다는 것이고 ‘여래장알라야식’은 이것이 성문·독각·외도의 대상이 아닌 불보살의 대상임을 말하는 문맥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는 표현양식의 의미는 결합문구 중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구 ①에서 설명되고 있다. 먼저 문구 ①에서는 여래장이 생과 趣의 작자이며 마치 배우와 같이 위험한 趣에서 유전(pravṛtti)한다고 하여, 여래장을 윤회의 주체로 규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여래장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결합한다. 즉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다. 그런데 이때 그 여래장에는 “무시이래의 종종 회론에 의한 추중의 습기로 혼습되어”라는 수식이 붙는다. 이로

tūrthyānuvarṇitāḥ /

14) LAS[60,2-5/Nj:235,15-236,1]: kṣaṇīkaṃ punar mahāmate ālayavijñānaṃ tathāgatagarbhasaṃśābditaṃ manāḥsahitaṃ pravṛttivijñānavāsanābhiḥ kṣaṇīkaṃ, anāsravavāsanābhir akṣaṇīkaṃ /

15) 본고의 제3장 여래장과 무루습기 참조.

부터 세 표현 양식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 갖는 의미가 드러난다. 바로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란 희론습기에 혼습된 여래장, 혹은 희론습기를 갖는 여래장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구 ①에서는 이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 파도와 같은 7식과 동반한다고 하여 이것이 유식의 8식 체계 중 알라야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단절되지 않는 체로 생기하며 무상(無常)의 과실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여 그것의 상주성을 드러낸다. 이어서 이론(我論)을 떠나 있다는 수식을 통해서서는 그 여래장이 아뜨만이 아님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성청정한 것이라고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뜻은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라는 표현양식이 등장하는 다른 문구들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문구 ④, ⑤에서는 이것이 윤회의 주체임이 표명되어 있다. 그리고 문구 ③에서는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 즉 희론습기를 갖는 여래장이 청정해져야만 함이 언급되고 있다. 나아가 문구 ⑦에서는 『승만경』의 여래장을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데 본고의 제5장에서 살펴볼 것 이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승만경』의 여래장이란 윤회의 주체로서의 여래장이다. 따라서 문구 ⑦은 문구 ④, ⑤와 마찬가지로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임을 표명하는 문구이다. 마지막으로 문구 ⑩은 그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 유식의 8식 중 알라야식에 대응됨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찰나품」에서는 총11개의 결합문구가 3종의 표현양식으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세 양식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며 동일한 의미군에 속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중 문구 ①은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여래장’이라는 표현양식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들 결합문구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구 ①에 의거할 경우, 기존 연구들이 주장하여 왔던 LAS에서의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동일시, 즉 여래장=알라야식이라는 도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여래장과 알라야식 사이에는 희론습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구 ①에서는 “무시이래의 종종희 희론(戲論)에 의한 추중(麤重)의 습기로 혼습되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게 된 [이 여래장은]”이라고 하고 있다. 즉 희론습기로 혼습된 여래장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다. 여래장이 희론습기로 혼습되었을 때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여래장 그 자체가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알라야식이란 여래장에 희론습기가 부가된 것이며(알라야식=여래장+희론습기), 여래장이란 알라

야식에서 희론습기가 제거된 것이다(여래장=알라야식-희론습기). 이와 같이 여래장과 알라야식 사이에는 희론습기가 존재한다. 만약 여래장=알라야식으로 이 둘을 동일시한다면 이 희론습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LAS에서 여래장이 알라야식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기존의 견해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여래장에 희론습기가 부가된 것이 알라야식이지 여래장 그 자체가 알라야식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II. 여래장과 무루습기

LAS에서 여래장이 곧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AS에서 여래장이 알라야식과의 관계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여래장이 알라야식과의 관계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를 앞서 제시한 문구 ⑩과 문구 ⑪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 두 문구가 등장하는 부분을 앞뒤 문맥과 함께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마하마띠여! 선과 불선은 즉 8식들이다. 무엇이 8인가? 즉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과 意와 의식, 그리고 외도가 말하는 5식신이다. 마하마띠여! 이중 의식을 동반하는 5식신은 선과 불선이 매 찰나 다르게 잇따른다는 점에서는 단절되며, 상속하는 흐름에 묶여있다는 점에서는 단절되지 않는 體를 가진 채 생기해나가면서 생기고 생기고는 소멸한다. [외경이] 자신의 마음이 현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5식신에] 멸하는 즉시 다른 [5식신의] 식이 생긴다. 특수한 형체와 형상에 집착하는 의식이 5식신과 상응하여 생긴다. 그 찰나의 시간에 머물지 않는 것을 찰나적인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또한 마하마띠여! 意와 동반하는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전식(轉識)의 습기에 대해서는 찰나적이나 무루의 습기에 대해서는 찰나적이지 않다. 그러나 찰나설에 집착하는 우부이생(愚夫異生)은 이 일체법의 찰나성과 비찰나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단견(斷見)에 의하여 무위법들을 또한 파괴하는 것이다.¹⁶⁾

16) LAS[Ta:58,3-61,3/Nj:235,6-236,4]: kuśalākuśalāḥ punar mahāmate yadutāṣṭau vijñānāni / katamāny aṣṭau, yaduta tathāgatagarbha ālayavijñānasamśabdito mano manovijñānaṃ ca pañca ca vijñānakāyās tīrthyānuvarṇitāḥ/ tatra mahāmate pañca vijñānakāyā manovijñānasahitāḥ kuśalākuśalākṣaṇaparamparābhedaḥabhinnāḥ samtatiprabandhanābhinnāsaṁrīrāḥ pravartamānāḥ pravartante (/ pravṛtya ca vinaśyanti /] svacittadrśyānavabodhāt samanantaranirodhe 'nyad vijñānaṃ pravartate

위 인용문에서는 8식의 찰나와 비찰나가 변별된다. 이 때 8식이란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과 意와 의식, 그리고 5식신을 말하는데 8식 중 알라야식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으로 대체되어 있다. 8식 중의 찰나와 비찰나에 대한 변별은 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과 5식신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8식 중의 5식신이 찰나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 5식신은 제6식인 의식과 상응하여 생멸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어서 8식 중의 알라야식에 등치되었던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으로 환언되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제7식인 意와 동반하며 찰나적이면서도 비찰나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찰나적이라는 것은 전식습기에 대해서 찰나적이라는 것이며 비찰나적이라는 것은 무루습기에 대해서 비찰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5식신은 찰나성만을 갖지만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찰나성과 비찰나성을 모두 갖는다.

이어서 찰나설에 집착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체법의 찰나성 비찰나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견에 의하여 무위법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비찰나성에 해당하는 무루습기가 곧 무위법임이 알려진다. 즉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의 비찰나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위법으로서의 무루습기이다.

이와 같이 문구 ⑩은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 습기의 관점에서 찰나적인 전식습기와 비찰나적인 무루습기의 둘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문구 ⑩의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며, 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란 문구 ①에 의하면 여래장에 희론습기가 부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구 ⑩과 문구 ①을 종합해보자면 여래장에 희론습기가 부가된 것이 곧 무루습기와 전식습기로 구성된 것이 된다.

이때 여래장에 부가되어 있는 희론습기가 무루습기와 전식습기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며, 또 희론습기가 무루습기와 전식습기 중 무루습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없다. 희론이 무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론습기는 알라야식을 구성하는 두 습기 중 전식습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찰나/비찰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알라야식은 여래장에 희론습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래장은 알라야식에 희론습기가 존

/ samsthānākṛtīviśeṣagrāhakaṃ manovijñānaṃ pañcabhir vijñānakāyaiḥ saha samprayuktaṃ pravartate / kṣaṇakālānavasthāyī tat kṣaṇikam iti vadāmi / kṣaṇikaṃ punar mahāmate ālayavijñānaṃ tathāgatagarbhasaṃśabditaṃ manaḥsahitaṃ pravṛttivijñānavāsanābhiḥ kṣaṇikam, anāsvāvāsanābhir akṣaṇikam / na ca bāla pṛthagjanā avabudhyante kṣaṇikavādābhiniṣṭāḥkṣaṇikā kṣaṇikatām imāṃ sarvadharmāṇāṃ, tad anavabodhād ucchedadrṣṭyāsaṃskṛtān api dharmān nāśayīṣyanti /

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희론습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희론습기는 무루습기와 전식습기 중 찰나적인 전식습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희론습기가 전식습기에 대응하므로, 여래장에 대응하는 것은 무루습기이다. 찰나/비찰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래장은 상주불변하는 것이며 무루습기는 비찰나적, 무위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둘은 비찰나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와 같이 문구 ⑩의 전식습기는 문구 ①의 희론습기에, 문구 ⑩의 무루습기는 문구 ①의 여래장에 대응된다. 즉 여래장은 무루습기이다.

여래장이 무루습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LAS에서 무루습기가 무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드러난다. LAS에서는 무루습기를 무위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정통의 유식설과 상위되는 것이다. 습기는 알라야식 안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므로 종자이기도 한데 『攝大乘論本』에서는 종자의 6義를 설하면서 종자가 ‘찰나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므로 찰나적인 전식습기뿐 아니라 비찰나적인, 즉 무위법으로서의 무루습기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는 LAS의 종자에 대한 인식은 정통의 유식설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LAS의 특이한 종자 인식은 여래장이 곧 무루습기임을 드러낸다. 유식과 여래장사상에서 여래장은 진여이고 진여는 법상체계상 무위법에 속하기 때문이다.¹⁸⁾

17) 『攝大乘論本』卷上, 「所知依分」(T. 31, 135a23-26):

外內不明了 於二唯世俗
勝義諸種子 當知有六種

剎那滅俱有 恒隨轉應知
決定待衆緣 唯能引自果

外[의 종자], 內[의 종자], [善과 不善] 명확하지 않은 [무기의 종자], [善 또는 不善] 둘 중의 [종자], 세속일 뿐인 [종자], 승의인 [종자]. 일체의 종자는 6종을 갖는다.

[종자]는 찰나멸하며, [결과와] 동시에 존재한다[俱有]. 지속적으로 뒤따라 생기하며[恒隨轉], [결과가] 정해져 있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기다리며 오직 自類의 결과만을 산출한다.

이중 ‘찰나멸’에 대한 세친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攝大乘論釋』卷2, 「所知依分」(T. 31, 329b28-c1): 剎那滅者。謂二種子皆生無間定滅壞故。所以者何。不應常法爲種子體。以一切時其性如本無差別故。(‘찰나멸’이란 [안과 밖의] 두 종자는 모두 생기하자마자 반드시 괴멸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상주한다는 속성[法]은 종자의 體가 될 수 없다. [만약 종자가 상주하는 것이라면] 항상 그 성질이 본래와 같아서 차별이 없겠기 때문이다.)

18) 유식학파에서 여래장이 진여, 그중에서도 유구진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Mahāyāsūtrālaṅkāra* 『大

또한 이는 문구 ⑪에 대한 보리류지 역으로부터도 지지된다. 보리류지는 무위법을 진여여래장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개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大慧여! 찰나적이란 공하다는 것이다.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은 意와 함께하는 전식의 혼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 무루의 혼습법은 갖추고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 大慧여!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모든 범들이 찰나적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한다.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는 무루법 역시 찰나적이며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 진여여래장을 파괴하는 것이다.¹⁹⁾

위의 보리류지의 번역에 대응하는 원문에서 무위법은 찰나에 집착하는 자들이 단견에 의하여 파괴하는 대상으로서,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 갖는 비찰나성인 무루습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보리류지는 그 무위법을 진여여래장으로 번역한다. 그러므로 보리류지 역에 의거할 경우, 무루습기란 여래장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LAS에서 여래장은 무루습기이다. 알라야식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여래장은 알라야식에 내장되어 있는 무루습기이다. LAS는 여래장을 습기의 형태로 알라야식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래장이 ‘습기’의 양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통의 유식설에 위배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식은 종자가 찰나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식에서 여래장은 불변이를 특징으로 진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식의 체계에서 종자와 여래장은 결합할 수 없다. 반면, RGV로 체계화 된 여래장 사상에서는 여래장을 종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RGV에서는 여래장의 3義, 즉 ‘법신의 편재’, ‘진여의 무차별’, ‘중성의 존재’를 말하면서 여래장에 중성의 의

乘莊嚴經論, 이하 MSA로 약칭)제9장의 37번째 개승(MSA[[40,13-16]])과 『攝大乘論本』 卷中, 「所知相分」(T. 31, 140b4-12)에 대한 『攝大乘論釋』 卷5, 「所知相分」(T. 31, 344a3-7)의 주석으로부터 확인된다. 또한 *Ratnagotravibhāga*(『究竟一乘實性論』, 이하 RGV로 약칭)에서 진여를 유구진여와 무구진여로 나눈 후 전자에 여래장을 배당시키고 후자에 법신을 배당시키는 언술(RGV[21.8-10])이나 여래장의 3義에서 여래장을 진여의 무차별로 설명하는 부분(RGV[26.5-9; 71,6-17])등에 근거해보았을 때, 여래장사상에서도 여래장은 진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MSA의 여래장설에 대해서는 김준우 2020을, 『攝大乘論釋』의 여래장설에 대해서는 김준우 2021을 참조.

19) 『入楞伽經』 卷8, 「剎那品」(T. 16, 559c2-6): 大慧! 言剎那迦者, 名之爲空. 阿梨耶識名如來藏, 無共意轉識熏習故名爲空, 具足無漏熏習法故, 名爲不空. 大慧! 愚癡凡夫不覺不知, 執著諸法剎那不住, 墮在邪見而作是言, 無漏之法亦剎那不住. 破彼眞如如來藏故.

미를 부여하고 있으며,²⁰⁾ 여래장을 출세간법의 종자라고도 말하고 있다.²¹⁾ 그러므로 여래장을 무루습기로 인식하는 LAS의 여래장설은 유식의 여래장설 보다는 여래장사상의 여래장설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무위의 무루습기와 본유의 무루종자

『성유식론』에서는 무루종자가 ‘본유’라는 말로 수식되어 등장한다. 이에 LAS에서 여래장에 등치되는 무위의 무루습기가 『성유식론』에서의 본유의 무루종자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유식론』에서 ‘본유의 무루종자’는 종자의 생기방식을 둘러싼 논쟁, 이른바 신훘본유논쟁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성유식론』은 종자의 생기에 대한 총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셋이란 유루와 무루를 포함한 일체의 종자가 모두 본유적이라는 본유설(本有說), 모두 혼습에 의해 생기한다고 하는 신훘설(新熏說),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하여 종자에는 본유의 종자도 있고 신훘의 종자도 있다고 하는 합생설(合生

20) RGV[26,5-9;71,18-73,9]

21) RGV에서는 여래장, 법신, 붓다의 공덕, 승리자의 행위의 넷이 삼보를 낳는다고 한 후, 첫째인 여래장은 삼보가 생기하는 원인이 되며 나머지 셋은 삼보가 생기하는 조건이 된다고 그 넷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 여래장이 원인이 되는 이유로 그것이 출세간법의 종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RGV[26,9-17]: itīmāni catvāri padāny adhikṛtya hetupratyayabhāvena ratnatrayagotravyavasthānam veditavyam / tatraiṣāṃ caturṇāṃ padānāṃ prathamam lokottaradharmabījātvatṛ pratyātmayoniśomanasikārasamṅgīrayeṇa tadviśuddhim upādāya triratnotpattihetur anugantavyaḥ / ity evam ekaṃ padam hetuḥ / katham trīṇi pratyayaḥ / tathāgato ’nuttarāṃ samyaksambodhim abhisambudhya daśabalādibhir buddhadharmair dvātrimśadākāraṃ tathāgatakarma kurvan parato ghoṣasamṅgīrayeṇa tadviśuddhim upādāya triratnotpattipratyayo ’nugantavyaḥ / ity evam trīṇi pratyayaḥ / ataḥ param eṣāṃ eva caturṇāṃ padānāṃ anupūrvam avasiṣṭeṇa granthena vistara-vibhāganirdeśo veditavyaḥ /

(이상의 네 句[1] 유구진여로서의 여래장, 2) 무구진여로서의 여래법신, 3) 붓다의 공덕, 4) 승리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원인과 조건의 것으로서 삼보(三寶)의 종성이 설정된다고 알아야만 한다. 이중 이 네 句 중 첫째는, 출세간법의 종자이기 때문에, 자내증의 여러작의에 의하여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삼보가 생기하는 원인이라고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네 개의 句 중] 하나의 句는 원인이다. 어째서 [나머지 셋은 조건인가? 여래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깨닫고 나서 10力 등의 붓다의 속성들에 의하여 32개의 모습을 갖는 여래의 행위를 하면서 외적인 음성에 의지하여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삼보가 생기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네 개의 句 중] 세 개는 조건이다. 바로 이 네 句에 대하여서는 순서대로 뒤에서 나머지 후에 의하여 자세히 변별되어 설명될 것이라고 알아야만 한다.)

說)이다.²²⁾ 이때 본유의 무루종지는 본유설과 합생설에서 등장한다.²³⁾

먼저 본유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유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일체의 종지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며 훈습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훈습에 의해서는 다만 증장할 뿐이다.²⁴⁾

또한 『능가경』에서는 제 유정이 이미 “5종성을 차별적으로 본래 갖고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종자(法爾種子)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니 훈습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또한 『유가사지론』에서도 “지옥에서도 3무루근을 성취하며 이것은 종자의 상태이지 현행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하고 있다. 또한 “무시이래로 이어져 온 선척적으로 얻어져 있는 본성주성(本性住性)”이라고도 설하고 있다. 이들 전거에 의한다면 무루종지는 본성적으로 본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훈습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²⁵⁾

다음으로 합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유의 의미를 설명한다.

첫째는 본유[의 종자]이다. 즉 무시이래의 이숙식 안에 선천적으로 존재하여[法爾而有] 蘊

22) 『成唯識論』卷2(T. 31, 8a20-9b7). 이 중 본유설은 8a20-9b7, 신훈설은 8b6-b23, 합생설은 8b23-9b7에서 논해진다. 『成唯識論述記』에서 규기는 각 설의 주창자로 본유설은 호월(護月), 신훈설은 승군(勝軍)과 난타(難陀), 합생설은 호법(護法)을 언급하고 있다.

23) 특히 합생설에서는 이 본유의 무루종자를 『攝大乘論本』의 문훈습설과 연관시킨다. 합생설에서는 문훈습에는 유루성과 무루성이 존재하며 이중 유루성은 출세간법의 증상연이 되고 무루성은 출세간법의 인연이 된다고 설한다. 그리고 본유의 무루종자를 이중 문훈습의 무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즉 正法の 청취를 통한 훈습으로 본유의 무루종자를 증장시키는 것이 문훈습의 무루성이다.

『成唯識論』卷2(T. 31, 9a14-21): 其聞熏習非唯有漏, 聞正法時, 亦熏本有無漏種子, 令漸增盛展轉乃至生出世心. 故亦說此名聞熏習. 聞熏習中有漏性者, 是修所斷. 感勝異熟. 爲出世法勝增上緣. 無漏性者, 非所斷攝, 與出世法正爲因緣. 此正因緣微隱難了. 有寄顯勝增上緣, 方便說爲出世心種.

(그 문훈습은 오직 유루만인 것이 아니다. 정법(正法)을 들을 때에 본유의 무루종자 또한 훈습하여 [그 본유의 무루종자를] 점차 증장하게 함이 이어지면서 출세심을 남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훈습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문훈습 중의 유루성만은 [유루성과 같이] 수소단(修所斷)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출세간법에 있어 정인(正因)이 된다. 이 정인은 미세하고 감추어져 있어 알기 어렵다. 『섭대승론』은 이 문훈습의 유루성과 무루성 중 거칠게 드러나는(顯顯) 뛰어난 증상연(=문훈습의 유루성)에 의거하여 [문훈습을] 출세간법의 종자라고 방편으로서 설한 것이다.)

24) 『成唯識論』卷2(T. 31, 8a20-22): 此中有義. 一切種子皆本性有, 不從熏生. 由熏習力但可增長.

25) 『成唯識論』卷2(T. 31, 8a29-b5): 又諸有情既說本有五種性別. 故應定有法爾種子, 不由熏生. 又瑜伽說, 地獄成就三無漏根是種非現. 又從無始展轉傳來法爾所得本性住性. 由此等證, 無漏種子法爾本有不從熏生.

· 處 · 界를 낳는 특수한 힘이다.²⁶⁾

이로부터 마땅히 믿어야만 한다. 제 유정은 무시이래 무루종자를 갖고 있는데 [이 무루종자는] 훈습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선천적으로 성취되어 있는 것[法爾成就]이다. 후에 승진(勝進)의 단계에서 훈습하여 [무루종자를] 증장하게 한다. 무루법의 일어남은 이것을 원인으로 한다. 무루법이 일어날 때 다시 종자를 훈성(熏成)한다. 유루법의 종자도 이와 유사하다고 알아야만 한다.²⁷⁾

이상의 인용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유설과 합생설에서는 ‘본유’를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훈습의 역할은 종자의 생기가 아닌 종자의 증장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성유식론』에서 말하는 본유의 무루종자란 본래부터 선천적으로 식안에 존재하고 있던 종자이다. 훈습에 의해서 생기한 것이 아니며 훈습에 의해서는 다만 증장할 뿐인 종자이다.

그런데 증장한다는 것이란 종자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유의 무루종자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반면 LAS에서의 무루종자는 무위법이다. 따라서 변이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LAS의 무루종자와 『성유식론』의 무루종자는 명칭은 같으나 전자는 변이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변이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LAS의 여래장 도입 의도

LAS가 여래장을 무루습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LAS의 여래장설이 유식의 여래장설 보다는 여래장 사상의 여래장설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래장을 ‘알아야식’과 ‘습기’라는 유식의 술어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LAS가 유식의 입장에서 그 여래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LAS가 무슨 이유로 여래장을 유식의 교의체계에 끌어 들인 것인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이하 LAS에서의 여래장 도입 의도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26) 『成唯識論』卷2(T. 31, 8b23-25): 一者本有. 謂無始來異熟識中, 法爾而有, 生蘊處界功能差別.

27) 『成唯識論』卷2(T. 31, 9a7-11): 由此應信. 有諸有情無始時來有無漏種, 不由熏習, 法爾成就. 後勝進位熏令增長. 無漏法起以此爲因. 無漏起時復熏成種. 有漏法種, 類此應知.

먼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결합하고 있는 11개의 결합문구들이 등장하는 문맥을 살펴 보았을 때, 그 의도가 윤회의 주체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구들은 모두 윤회의 주체라는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구 ①부터 문구 ⑨까지는 모두 「찰나품」이 다루는 다섯 주제 중 아뜨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문구 ①에서 문구 ⑨까지는 윤회의 주체 문제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문구들 중에서도 문구 ①, ④, ⑤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의 결합인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구 ⑩과 문구 ⑪은 「찰나품」이 다루는 다섯 주제 중 네 번째 주제인 일체법의 찰나멸을 논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8식의 찰나와 비찰나를 변별할 때에 등장한다. 이때 8식 중 5식신은 찰나성만을 갖는 것으로, 알라야식에 해당하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문구 ⑩), 또는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문구 ⑪)은 찰나성과 비찰나성을 모두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등장한다.

마하마띠여! 5식신은 윤회의 주체가 아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이 아니다. 열반의 원인인 것도 아니다. 마하마띠여! 여래장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의 원인을 가지며, 4가지 습기(=有(bhava) · 欲(kāma) · 色(rūpa) · 見(dṛṣṭi))과 화합하여(sammūrchita) 유전하고 환멸한다. 그러나 찰나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분별에 훈습된 智를 갖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²⁸⁾

위의 인용문에서는 8식 중의 5식신과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samsārin)의 관점에서 대비되고 있다. 즉 5식신은 윤회의 주체가 아니며, 여래장은 유전하고 환멸하는 윤회의 주체이다. 그런데 이 여래장은 “4가지 습기와 화합하여”라는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윤회의 주체로서의 여래장이란 훈습된 여래장, 즉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다.

이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문구 ⑩의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28) LAS[Ta:61,3-62,2/Nj:236,4-8]: asaṃsāriṇo mahāmate pañca vijñānakāyā ananubhūtasukhaduḥkhā anirvāṇahetavaḥ / tathāgatarbhaḥ punar mahāmate anubhūtasukhaduḥkhahetusahitaḥ pravartate nivartate ca catasṛbhir vāsanābhiḥ sammūrchitaḥ / na ca bālā avabudhyante kṣaṇikadrṣṭivikalpavāsītamatayaḥ //

며, 문구 ⑪의 ‘여래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다. 그러므로 문구 ⑩과 문구 ⑪ 역시 문구 ①-⑨까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 문맥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서도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AS에서 결합문구들은 ‘윤회의 주체’라는 등장문맥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LAS에서의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결합은 윤회의 주체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윤회의 주체가 결합의 배경이 되는 사상적 근거는 여래장과 알라야식이 유식과 여래장사상 각각의 정통체계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삼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진다.

먼저 유식학파가 알라야식을 윤회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MS와 *Pañcaskandhaka* (『大乘五蘊論』, 이하 PSk로 약칭)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부분에서 발견된다. MS에서는 알라야식이 잡염과 청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라야식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법으로 알라야식의 존재를 증명한다. 즉 알라야식이 없다면 윤회와 해탈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리는 찰나적인 전식들로는 업의 이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마찬가지로 PSk에서도 윤회의 유전과 환멸이라는 관점에서 알라야식의 존재를 증명한다.³⁰⁾ PSk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지만, *Pañcaskandhakavibhāṣā* (이하 PSkV로 약칭)는 12지 연기에서의 ‘행(行)을 조건으로 하는 식(識)’에서의 식이 설일체유부의 결생식이나 경량부의 찰나멸하는 육식신이라면 업의 이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로 PSk의 해당개

29) 『攝大乘論本』 卷上, 「所知依分」(T. 31, 135b20-137a20)에서 알라야식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長尾雅人 1982의 과단에 따르면 1.29-56). 이 중 1.29는 존재증명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알라야식이 없다면 잡염과 청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증의 기본구조가 등장한다. 이하 1.30-42에서는 잡염의 불성립이, 1.43-49에서는 청정의 불성립이 구체적으로 논증된다. 이어서 1.50-55은 방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1.50-54에서는 멸진정을 통한 알라야식의 존재증명이, 1.55에서는 무색계나 무상천으로부터의 재생, 아라한의 최후심을 통한 알라야식의 존재증명이 등장한다. 1.56은 이상의 논의를 총괄하는 결론부에 해당한다. 이상의 MS의 알라야식 존재증명에 대한 과단 설정과 과단별 상세한 주석적 설명에 대해서는 長尾雅人 1982, 177-247을 참조.

30) PSk[16,11-17,4]: yato nirodhasamāpattyaśāñjñīsamāpattyaśāñjñīkebhyo vyutthitasya punar viśayavi-jñāptyākhyam pravṛttivijñānam utpadyata ālambanapratyayāpekṣam prakārāntaravṛttitām chinna-punarvṛttitām saṃsārapravṛttinivṛttitām copādāya /

(1) 滅盡定, 無想定, 無想[有情天]으로부터 깨어난 자의 경우, 그것(=알라야식)으로부터 다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라고 하는 轉識이 생긴다. 2) 所緣緣에 의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轉識이] 생기하기 때문에, 3) [轉識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기하기 때문에, 4) 윤회의 流轉과 還滅 때문에 [전식과 별개로서의 알라야식은 존재한다.]

소를 주석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MS와 PSk에서는 윤회의 원리가 되는 업의 이숙은 알라야식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알라야식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는 알라야식의 비찰나성이 전제되어 있다. 알라야식 이외의 식들은 모두 찰나적이기 때문이다.³²⁾

31) 이 PSk의 네 증명 중 윤회의 주체를 통한 논증부분은 안혜의 TrBh[116,3-120,20]에서도 그대로 등장한다. PSkV에 대한 일본어 번역 및 알라야식 증명에 대한 TrBh와 PSkV의 관계에 대해서는 松田和信 2010을 참조할 것.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결생식과 육식신이 각각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주장이라는 것은 TrT[D. 4070, 49a2-4]의 주석에서 확인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PSkV에서의 결생식 및 육식신 비판의 주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발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SkV[102,8-14]: tatra na pratisandhivijñānam pūrvajanmopacitasamskārapratyayam | pūrvajanmopacitasamskārāṇām ciraniruddhatvāt | niruddhasya cāsattvāt | asataś ca pratyayābhāvāt / yadi niruddhasya pratyayatvaṃ neṣyate | evaṃ ca saty aphalam eva karma syāt | na hi vartamānāt karmaṇo vipāko nirvartate / naitad evam | tajjabhāvanāvasthānāt / karmāhitāyāś cittasantāne vāsanāyāḥ paripākaviśeṣaṃ gatāyā vipāko nirvartate / tasmān na viphalam karma | na ca niruddhāt karmaṇo vipāka iti /

(이중 전생에 쌓은 행을 조건으로 하는 결생식은 [행을 조건으로 하는 식]이 아니다. 전생에 쌓은 행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소멸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소멸한 것이 조건이 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업은 결과를 갖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업으로부터 이숙은 생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로부터 생긴 혼습(bhāvanā)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업에 의해 심어진 습기가 심상속 안에서 특수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이숙이 생긴다. 그러므로 업이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을 아니다. 또 이미 소멸한 업으로부터 이숙이 있는 것도 아니다.)

PSkV[103,8-13]: ṣaḍvijñānakāyāḥ saṃskāraparibhāvitāḥ saṃskārapratyayam vijñānam ity ayam api pakṣo durghaṭita eva / kiṃ kāraṇam / na hi vijñānam vipākavāsanāṃ niṣyandavāsanāṃ vātmanyādhātum samartham | ātmani kāritravirodhāt / nāpy anantare | tasya tadānutpannatvād anutpannasya cāsattvāt / nāpy utpanne | pūrvasya tadā niruddhatvāt /

(행에 의해 혼습된 육식신이 '행을 조건으로 하는 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 역시 곤란하다. 어째서인가? [육식신으로서의] 식이 이숙습기와 등류습기를 자기 자신 안에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작용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직후의 [육식신]에 [습기를 심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 직후의 육식신)은 그때(=습기를 심을 때) 생기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생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생기한 [육식신]에 [습기를 심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전의 [육식신]은 그 때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32) 『瑜伽師地論』「攝決擇分」과 『大乘阿毘達磨雜集論』, 『顯揚聖教論』에서도 알라야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8논증이 등장하고 있으나 『攝大乘論本』과 PSk와 같이 윤회의 주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8논증 역시 알라야식이 전식과 달리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攝決擇分』과 『大乘阿毘達磨雜集論』, 『顯揚聖教論』에서 등장하는 8논증에 대한 연구로는 袴谷憲昭 1978을 참조. 논증에 대한 해설뿐 아니라 세 문헌의 해당개소에 대한 원문대조와 일본어 번역을 제공한다. 袴谷憲昭 1978, 21은 이 8논증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들 8논증의 배후에 일관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식(pravṛtti-vijñāna, 轉識)의 근저에, 중층적인 구조를 취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이다. 그것이 알라야식이며, 그 중층적 구조 하에서 식들이 동시

다음으로 여래장 사상에서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승만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로부터 확인된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윤회할 때에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래장에 관하여 세존은 전제(前際)가 없다고 설하고 이름 하였던 것입니다. 세존이여. 여래장이 있을 때, 윤회라는 것이 있다면 그 말은 타당한 것입니다.³³⁾

앞서 문구 ⑦에서 보았듯이 LAS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이 『승만경』에서 말하는 여래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LAS는 기존의 여래장설에서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식과 여래장사상의 각 정통설에 있어 알라야식과 여래장은 각각 윤회의 주체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의 일치가 LAS에서 알라야식과 여래장의 결합을 가능케 한 사상적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정통설에서 윤회의 주체로 설정되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에는 법상분류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식으로서 유위법으로 분류되는 반면 후자는 진여로서 무위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식학과에서 윤회의 주체인 알라야식은 업의 이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비찰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상체계에서 알라야식은 유위법에 속하므로 찰나적이다.³⁴⁾ 그러므로 알라야식을 윤회의 주체로 설정하는 유식의 주장

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된다.”

33) 『승만경』(H. 92, 448a5-a7): bcom ldan 'das /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ni 'khor ba na rton pa lags te /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nyid kyi dbang du bgyis nas / bcom ldan 'das kyis sngon gyi mtha' med do zhes bshad cing btags so // bcom ldan 'das /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mchis na 'khor ba zhes mchi na ni tshig de rigs pa lags so //

34) 유위법이 찰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Abhidharmakośabhāṣya*(『阿毘達磨俱舍論』, 이하 AKBh로 약칭)의 이하의 문구를 참조

AKBh[193,1-4]:

na gatir yasmāt saṃskṛtaṃkṣaṇikam

ko 'yaṃkṣaṇo nāma / ātmalābho 'nantravināśī / so 'syāstīti kṣaṇikam / daṇḍakavat / sarva hi saṃskṛtam ātmalābhād ūrdhvaṃna bhavaṭīti yatraiva jātaṃtatraiva dhvasyate / tasyāyuktādeśāntarasamkrāntiḥ/ tasmān na gatiḥkāyakarma /

(신표업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유위[법]은 찰나적이기 때문이다.

이 찰나란 무엇인가? 자체를 얻자마자 바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찰나)이 그것(=유위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찰나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막대를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실로 일체의 유위[법]은 자체를 얻은 후에는 존재하

에는 모순이 있다. 윤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찰나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알라야식은 찰나적인 유위법이기 때문이다.

LAS는 이러한 모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LAS에서도 찰나/비찰나의 관점에서 윤희의 주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LAS에서는 8식의 찰나/비찰나를 변별할 때, 찰나적인 것으로서의 5식신과 찰나적이고 비찰나적이기도 한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을 대립시키고 있다. 이어서 윤희의 주체를 언급하는데 이 때에도 5식신과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의 대립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5식신은 윤희의 주체가 아니나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윤희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 윤희의 주체가 아닌 5식신은 찰나성만을 가지나 윤희의 주체인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찰나성과 비찰나성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LAS는 비찰나성을 윤희의 주체가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은 5식신과 달리 비찰나성 또한 갖기 때문이다.

이때 비찰나성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무루습기이다. 그리고 이 무루습기는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여래장이다. 이와 같이 LAS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 즉 여래장과 알라야식이 결합한 것을 윤희의 주체로서 제시하면서도 알라야식이 아닌 여래장을 통하여 윤희의 주체가 갖는 비찰나성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LAS는 유식의 체계에서 윤희의 주체로서 설정된 알라야식이 갖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래장을 도입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여래장이 윤희의 주체가 갖는 비찰나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VI. 결론

이상, LAS의 찰나품에 등장하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의 결합문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LAS의 여래장설을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LAS의 여래장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LAS에서 여래장은 알라야식과 동일시되고 있지 않다. LAS에서는 ‘알라야식이

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기한 곳, 바로 그곳에서 소멸한다.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신업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불리는 여래장'이라고 할 때, 그 여래장에 '희론습기에 혼습된'이라는 수식을 붙인다. 즉 희론습기에 혼습된 여래장, 다시 말해 희론습기가 부가된 여래장이 알라야식인 것이지 여래장 그 자체가 알라야식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LAS에서 여래장과 알라야식이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기존 견해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2) LAS에서 여래장은 알라야식에 내장되어 있는 무위의 무루습기이다. 여래장을 습기, 즉 종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LAS의 여래장설은 유식의 여래장설과 차별된다. 유식학파에 있어 여래장은 진여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래장 사상에서는 여래장을 진여뿐 아니라 '출세간법의 종자나 '중성'으로도 인식한다. 그러므로 LAS의 여래장설은 유식의 여래장설 보다는 여래장사상의 여래장설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LAS에서 여래장에 등치되는 무루습기는 『성유식론』에서 등장하는 본유의 무루종자가 아니다. LAS의 무루습기는 무위법이므로 변이하지 않지만 『성유식론』의 무루종자는 혼습에 의해 증장한다는 의미에서 변이하기 때문이다.

4) LAS는 유식의 체계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설정된 알라야식이 갖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래장을 도입하였다. 알라야식은 윤회의 주체이므로 비찰나적이지만 동시에 유위법이기 때문에 찰나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모순을 갖는다. LAS는 이 알라야식과 여래장을 결합한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여래장'을 윤회의 주체로 제시하는데, 이때 윤회의 주체가 가져야 할 비찰나성을 여래장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여래장이 윤회의 주체가 가져야 할 비찰나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LAS가 윤회의 주체로서의 알라야식이 갖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래장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약호

- AKBh : *Abhidharmakośabhāṣya*, ed. by P. Pradhan,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Patna: K. P. Jayaswal Reserch Institute, 1967.
- LAS(Nj) : *Laṅkāvatārasūtra*, ed. by Nanjio Bunyiu, 『梵文入楞伽經』, Bibliotheca Otaniensis 1, Kyoto: Otani University, 1923.
- LAS(Ta) : ed. by Jikido Takasaki, *A revised edition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 kṣaṇika-parivarta*, Tokyo, 1981.
- MSA : *Mahāyānasūtrālamkāra*, ed. by Sylvain Lévi, *Mahāyāna-sūtrālamkāra : expose de la doctrine du grand vehicule*, Tome I Texte, Paris, 1907.
- PSk : *Pañcaskandhaka*, ed. by Ernst Steinkellner and LI Xuezhzhe, *Vasubandhu's Pañcaskandhaka*, Vienna: Austrian Academy of Science Press, 2008.
- PSkV : *Pañcaskandhakavibhāṣā*, ed. by Jowita Kramer, *Sthiramati's Pañcaskandhakavibhāṣā, Part I: Critical edition*, Beijing: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Vienn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2013.
- RGV : *Ratnagotravibhāga*, ed. by E.H. Johnston, *The Ratnagotravibhāga mahāyānottaratantraśāstra*, Patna: The Bihar Research Society, 1950.
- TrT : *Sum cu pa'i 'grel bshad: sde dge edition of Triṃśikāṭikā*, D 4070, sems tsam, hi, 1b1-63a7.

1차 자료

- 『승만경』 : *'phags pa lha mo dpal phreng gi seng ge'i sgr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lha sa edition of ārya-srīmālādevī-siṃhanāda-nāma-mahāyāna-sūtra*, H92, dkon brtsegs, cha, 418a6-454a4.

2차 자료

- 김준우. 2020. 『대승장엄경론』의 여래장설, 『불교학보』93: 36-57.
- _____. 2021. 『십대승론석』의 여래장설, 『보조사상』59: 305-337.

- 勝又俊教. 1961. 『仏教における心識説の研究』. 東京: 山喜房仏書林.
- 高崎直道. 1980. 『楞伽經』. 東京: 大藏出版.
- _____. 1982. 「如來藏とアーラヤ識」, 『講座・大乘仏教』6: 151-183.
- 長尾雅人. 1982. 『攝大乘論一和譯と注解 (上)』. 東京: 講談社.
- 袴谷憲昭. 1978. 「アーラヤ識存在の八論証に関する諸文獻」,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36: 1-26.
- 松田和信. 2010. 「五蘊論スティラマティ疏に見られるアーラヤ識の存在論証」, 『インド論理學研究』1: 195-211.

The *Tathāgatagarbha* Theory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Jun Woo KI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aṅkāvatārasūtra (LAS) combines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in the expression of ‘*tathāgatagarbha* which is called *ālayavijñāna*’, ‘*ālayavijñāna* which is called *tathāgatagarbha*’, ‘*tathāgatagarbhālayavijñāna*’.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heory of LAS based on the *kṣaṇikaparivarta* contained within LAS in which these expressions appear.

First,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tathāgatagarbha* which is called *ālayavijñāna*’, I examined the existing theory that *tathāgatagarbha* is identified with *ālayavijñāna* in LAS. And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the *tathāgatagarbha* infused by *prapañcavāsanā* that is called the *ālayavijñāna*, rather than the *tathāgatagarbha* itself, I deduced that LAS doesn’t identify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Next, I argued that *tathāgatagarbha* is *anāsravavāsanā*, which exists in the *ālayavijñān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first, the *tathāgatagarbha* that is infused by *prapañcavāsanā* consists of *anāsravavāsanā* and *pravṛttivijñānavāsanā*. Among them, *prapañcavāsanā* corresponds to *pravṛttivijñānavāsanā* and *tathāgatagarbha* corresponds to *anāsravavāsanā*. Second, the *anāsravavāsanā* is recognized as *asaṃskṛta* in LAS. Third, Bodhiruci translates the *asaṃskṛta*, which refers to *anāsravavāsanā*, into 真如如來藏.

Finally, I argued that *tathāgatagarbha* is accepted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ālayavijñāna* as the agent of *saṃsāra* in LAS. To be the agent of *saṃsāra*, one must not be momentary. But *ālayavijñāna* is momentary in the system of Vijñānavādin. In LAS, '*tathāgatagarbha* which is called *ālayavijñāna*' is the agent of *saṃsāra*. And at the time *tathāgatagarbha* is used as a continuity which is essential to the agent of *saṃsāra*. From this, it is revealed that LAS accepted the *tathāgatagarbha*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ālayavijñāna* as the agent of *saṃsāra*.

Keywords : *Laṅkāvatārasūtra*, *ālayavijñāna*, *tathāgatagarbha*, *anāsravavāsanā*, agent of *saṃsāra*.

2021년	9월 11일	투고
2021년	10월 2일	심사완료
2021년	10월 6일	게재확정